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를 하시였다



(3면에서 계속)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개최소식에 접하여 온 나라가 양양된 기세로 들끓고있는 속에 1월 6일 대회 2일회의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1일회의에 이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를 계속하시였다.

2일회의의 보고에서는 교통운수, 기본건설 및 건재공업, 체신, 상업, 국토환경, 도시경영, 대외경제를 비롯한 주요부문들과 경제관리분야의 실태가 분석되고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해당 부문들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목표와 실천방도들이 상정되였다.

또한 보고는 농업, 경공업, 수산업부문에서 계획적이며 지속적인 생산장성을 이룩하고 시, 군들을 자립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생활에서 페부로 느낄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해결방책들을 언급하였다.

보고는 국가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여 나라와 인민의 안전과 사회주의건설의

평화적환경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려는 중대의지를 재천명하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목표들을 제기하였다.

보고에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였다.

1월 7일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3일회의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2일회의에 이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를 계속하시였다.

3일회의의 보고는 문화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지난 5년간의 사업과정에 발로된 부족점과 교훈들을 심도있게 분석평가하였으며 이를 전진과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교육, 보건,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제기하였다.

또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우리 식의 생활양식을 확립하고 비사회주의적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들을 언급하였다.

국가관리를 개선하고 법무사업, 법무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현실적요구를 강조하면서 보고는 혁명의 귀중한 전취물이며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생활인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실천적방도들에 대하여 제기하였다.

보고에서는 당의 인전대이며 외곽단체인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들이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되었으며 동맹 내부사업, 사상교양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전 동맹을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력량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언급되였다.

보고는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하였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총적방향과 정책적립장을 천명하였다.

조선혁명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에 대한 참가자들의 비상한 관심과 열의가 고조되는 속에 보고는 총결기간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서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현시기 당사업에 내재되어있는

편향들을 시급히 바로잡고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도를 심화시키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선혁명의 내적동력과 발전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직면한 모든 장애와 난관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갈 방향을 명철하게 밝히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크나큰 걱정속에 접수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보고를 진지하게 청취하면서 모든 참가자들은 새로운 발전기, 도약기에 들어선 조선혁명이 제기하고있는 무겁고도 책임적인 투쟁과업들을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과 결부하여 깊이 연구하고있다.

대회가 계속될수록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의 위대성과 현명성에 대하여 더욱 절감하고있으며 대회를 계기로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투지를 새로이 가다듬고 앞으로의 실천투쟁에서 실제적인 성과, 실질적인 혁신을 이룩해나갈 혁명적 열의에 넘쳐있다.

대회는 계속된다.

본사기자

